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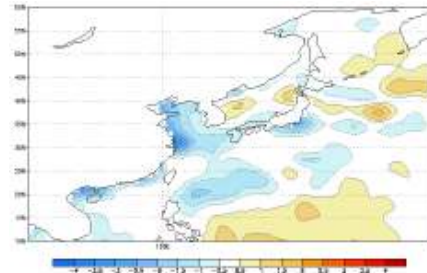


이상기후 감시 Upd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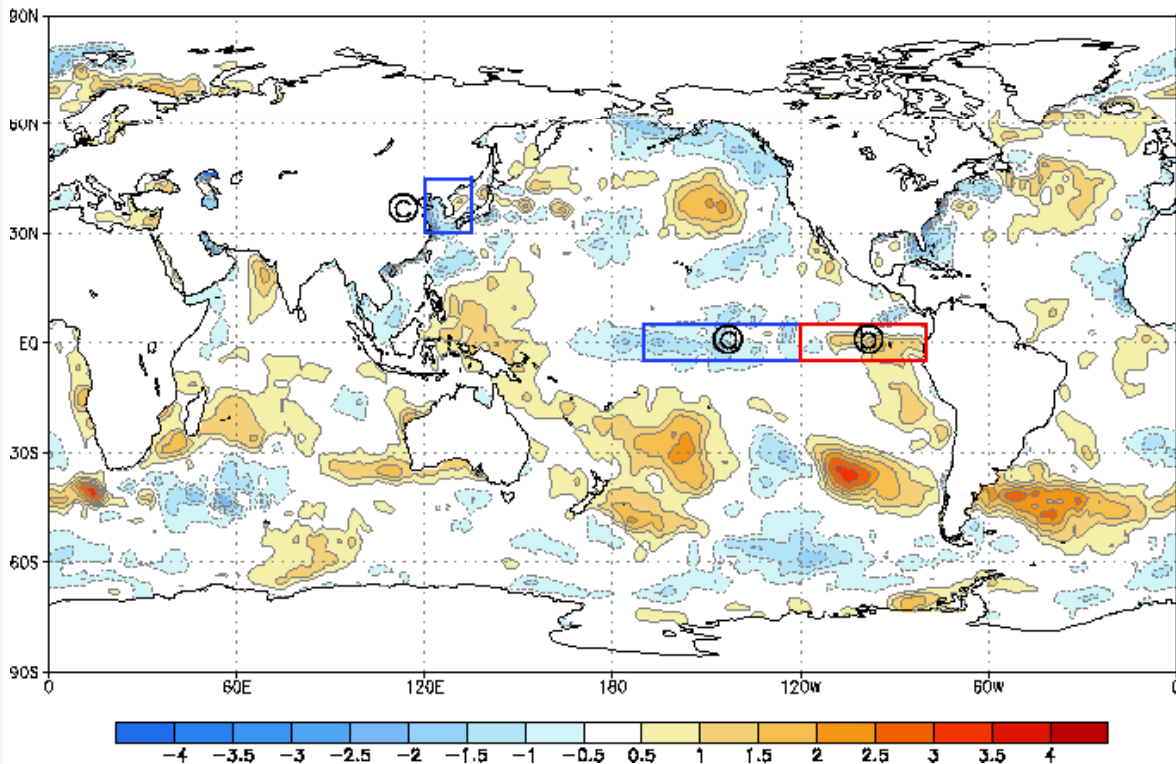
기상청 기후예측과 <http://www.kma.go.kr>

◆ 해수면 온도 현황

엘니뇨 감시구역 (ⓐ: Niño 3.4, 5°S~5°N, 170°W~120°W)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8°C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다. 열대 동태평양 (ⓑ: 5°S~5°N, 120°W~80°W)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5°C 높은 상태를 보이며 우리나라 주변 (ⓒ: 30°N~45°N, 120°E~135°E)의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약 0.8°C 낮은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우리나라 주변 해수면 온도 편차



해수면 온도 편차 (2009.1.18~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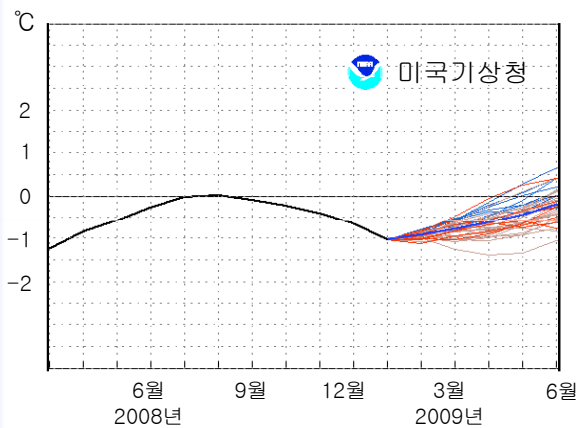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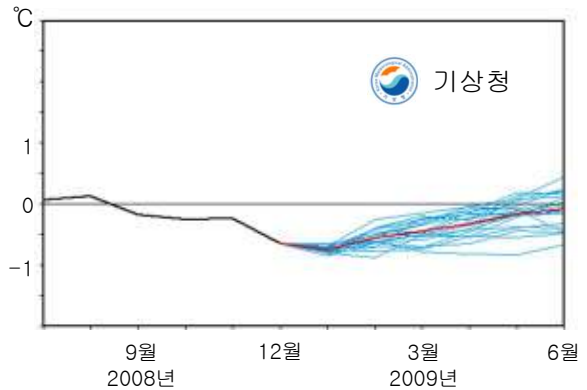
기상청 웹진 '이상기후 감시 Update'를 구독하고자 하시는 분은 기후예측과 (cl_pre@kma.go.kr)로 구독자 성명과 이메일 주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엘니뇨 / 라니냐 예측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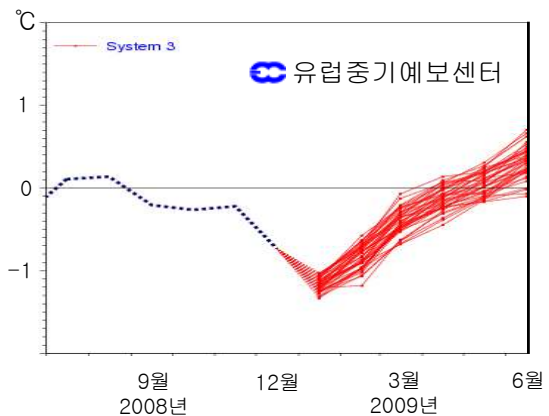
※ 엘니뇨 감시구역 (Niño 3.4 : 5°S~5°N, 170°W~120°W)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의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낮으며, 차츰 상승하여 봄철 이후에는 평년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미국 기상청 엘니뇨 예측모델의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평년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고 있으며, 차츰 평년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럽중기예보센터 엘니뇨 예측모델의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이번 겨울 동안에 평년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며, 차츰 상승하여 2009년 봄철 이후에는 평년상태로 회복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엘니뇨 예측모델 결과에 따른 엘니뇨 감시구역 해수면 온도는 이번 겨울 동안에는 평년보다 낮은 상태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상승하여 봄철 이후에는 차츰 평년상태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세계의 기상재해 (2009년 1월)



◆ 태풍/홍수

영국의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호우와 45 m/s 이상의 강풍으로 인해 나무가 쓰러지고 전선이 잘리는 등 피해가 발생했으며, 쓰러진 나무에 의해 30대 여성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17일). 유럽에서는 최고 풍속이 54 m/s에 이르는 태풍 '클라우스'로 인해 스페인의 건물이 붕괴되면서 4명이 숨졌고, 프랑스 남부지역에서 수백만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겼으며, 프랑스와 독일 등에서 다수의 인명피해가 초래돼 총 40 여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25일). 이번 태풍은 남부유럽에서 10 여 년 만에 발생한 가장 강력한 규모이다.



겨울폭풍 '클라우스'로 인해 쓰러진 프랑스 도로주변의 표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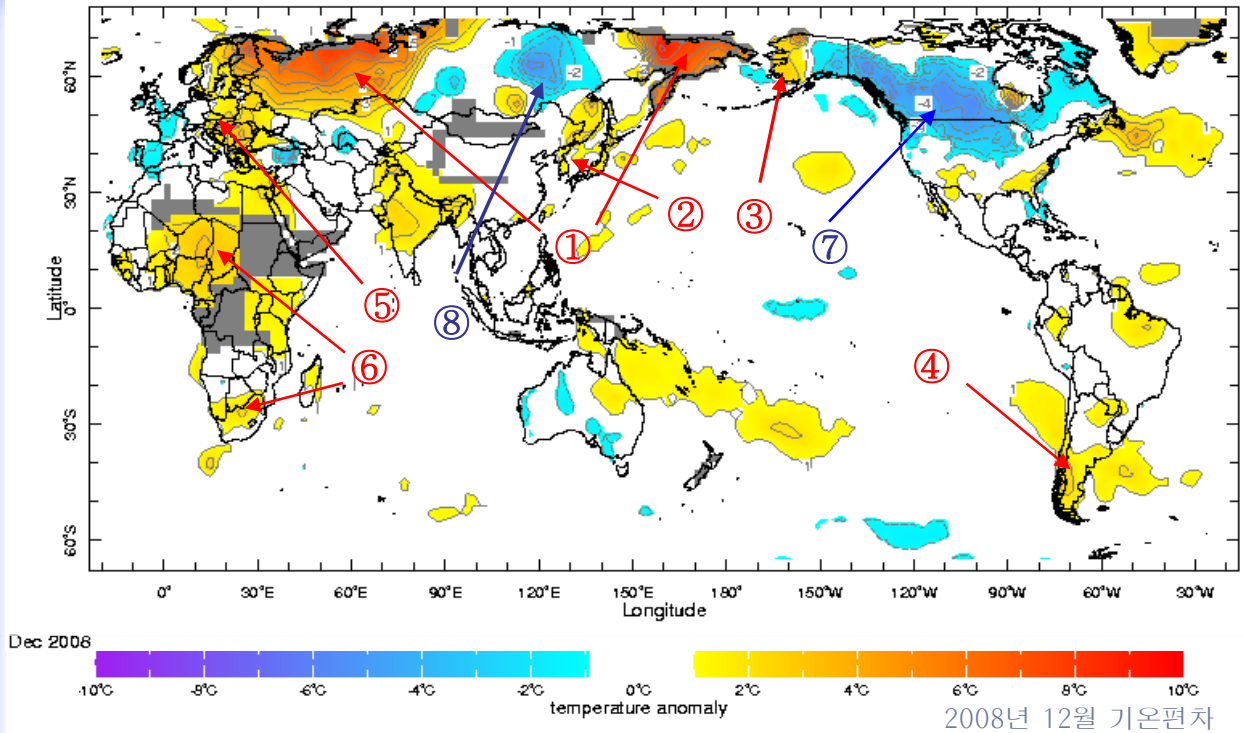
◆ 폭설

스코틀랜드에서는 폭설과 강추위로 인해 대부분의 도로가 눈에 덮여 교통에 장애를 야기했고 에든버러 공항의 활주도가 1시간 30분 이상 폐쇄되는 등 주요 공항의 활주도가 폐쇄되었다 (19일).



폭설이 내린 스코틀랜드의 라나크지역

세계의 기온현황 (2008년 12월)



2008년 12월의 전지구 월평균 기온은 평년값(12.2°C, 1901~2000년)보다 0.48°C 높았으며, 이는 1880년 이래 **여덟 번째 높은** 기온이다. 반구별 월 평균 기온은 북반구와 남반구에서 평년보다 각각 0.49°C, 0.47°C 높았다. 우리나라의 12월 기온은 평년(1971~2000년, 1.5°C)보다 0.8°C 높아 1973년 이래 **열 네 번째 높은** 기온을 기록하였다.

★ 고온

러시아 동서부 (①), 한국 (②), 알래스카 서부 (③), 남미 (④), 동유럽 (⑤), 아프리카 (⑥) 등의 지역에서 평년보다 약 1 ~ 7°C 높은 기온을 보였다.

★ 저온

캐나다 (⑦), 러시아 중부 (⑧) 등의 지역에서는 평년보다 약 1 ~ 6°C 낮은 기온을 보였다.